

벵갈지역 여성어부의 삶과 무형유산으로의 확장: 공동체의 기여 및 지속가능성, 생존, 지속성의 의미

로마무드라 마이트라 밋파이
인도 심바이오시스대학

1-5

서론

벵갈만 지역은 고대부터 무역과 어업 등 해상활동의 중요한 요충지로, 이 지역의 중요성은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 거대한 수역은 혼잡한 무역과 상업 네트워크를 보여주며, 이곳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에 사는 수 천 명의 생계 기반이다. 직업으로서의 어업은 식량과 영양 안보의 중요한 부문이며, 인도 단독적으로 9백만 명 이상의 어민들이 해안가를 따라 거주한다. 이들은 생계를 위해 어업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며 이 중 80%가 소규모 어부들이다. 어업 부문은 1400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인도 GDP의 1.1%를 차지한다.¹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확한 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민들의 숫자 중 여성 어민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이들은 다른 방식의 수입을 통해 가족의 수입을 보충하고, 전통적인 어업방식 등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의 요소들을 유지하는 주요 전달자가 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 세대에 걸쳐 이바지해왔다. 본고에서는 특히 방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 등 벵갈만 서부 연안 국가에서 여성 어민 공동체가 기여하는 바를 살펴볼 것이다. 여성어민들은 가족의 주요 직업을 통해 생계유지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수공업과 미술품 등 다양한 부수적인 수입원을 통해 재정적으로 도움을 준다. 이것은 어획량이 적은 시기는 물론 현재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같은 재난의 시기에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대단히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어민들의 시도는 그들의 본업을 비롯해 공동체 가치의 전달을 돕고, 공동체 내 성역할을 재정립하는 것과 같은 무형문화유산의 다양한 방식의 지속을 통해 공동체 전체의 결집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요소들을 연결시킨다.

벵갈만

벵갈만은 남아시아에서 중요한 수역이다. 이것은 인도양 동북부에 있는 만으로 약 839,000제곱마일(2,173,000km²)에 걸쳐 위치한다. 넓이는 약 1,000마일(1,600km²)이고 평균 수심은 8,500피트(2,600m)이다. 북위 5도와 22도, 동경 80도와 90도 사이에 위치하는 이 수역은 서쪽으로는 스리랑카와 인도, 북쪽으로는 미얀마(이전에는 버마), 그리고 동쪽으로는 말라이 반도의 북쪽지역 등 여러 국가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국제수로 기구는 이 수역의 서쪽 끝은 스리랑카 남쪽 끝인 돈드라곶으로, 동쪽 끝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의 북쪽 끝으로 정의한다. 안다만과 니코바르

1. 코로나19가 해양 어업 공동체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 2020

제도(벵갈만)를 안다만해로부터 분리하는 유일한 섬들이다. 또한 여기에서 중요하게 언급되어야 할 것은 벵갈만을 둘러싼 국가들이 여러 중요한 강의 축복을 받았으며 많은 강들이 벵갈만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점이다. 즉, 서쪽으로는 마하나디강, 고다바리강, 크리슈나강, 코버리강(인도), 포크해협(인도와 스리랑카 사이), 마하웰리강가강(스리랑카), 북쪽으로는 야무나강, 강가강, 브라마푸트라강, 브라마니강, 바이타라니강, 바락강(인도), 파드마강, 메그나강, 수르마강(방글라데시),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라와디강(미얀마)이 있다. 각각의 강은 다양한 지류가 있고 이들도 모두 벵갈만으로 흘러 들어간다.

벵갈만 지역의 역사적 맥락 이해

이 지역이 매우 먼 고대로부터 중요하고 변화한 곳이었음을 암시하는 다양한 고고학적, 역사적 기록들이 존재한다. 고고학적으로, 동남아시아 관련 벵갈만에서의 해상활동은 기원전 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다양한 고고학적 기록들은 또한 서벵갈과 오디샤(인도), 방글라데시 연안지역에서 스리랑카와 안다만과 니코바르제도까지, 이후 무역과 상업을 위해 동남아시아까지 이어지는 항해의 역사를 말해준다. 반면, 스리랑카에서 생선과 수산물(식사의 일부로 소비했음)을 증명하는 다양한 고고학적 증거들이 홀로세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발견된다.² (홀로세 최대 해수면 상승은 6,260-2,270년 전 발생했다)³ 이것은 생선과 수산물이 지역 식생활의 일부로 인기있었음을 보여준다. 현재 벵갈만 지역은 어업으로 분주하다. 방글라데시, 인도, 부탄,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벵갈만 다분야 기술경제 협력기구(BIMSTEC) 등 이 지역의 적절한 기능을 조사하기 위해 지역 내 국가들 간 다양한 협약이 진행 중이다. 이 지역 국가들의 국내총생산의 합은 35조 달러이고 인구는 15억 명이다. BIMSTEC이 확인한 주요 협력 분야는 14개로, ‘어업’은 여섯 번째 분야이다. 벵갈만 지역은 방글라데시, 인도, 미얀마의 수역을 나누는 배타적 경제 수역(EEZ)의 성장을 목격했다. 그러나 이 모든 협약과 협정에도 불구하고 어업이라는 직업과 관련해서는 이 지역의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2. (쿨라틸라케 외, 2014)

3. 패총은 과거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해안 환경에 정착하고 적응하며 해양자원을 이용했던 모습을 시사하는 것으로, 고고학자와 생물인류학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Ibid. pp 1-2)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UNCLOS)의 73조에서 ‘나포된 선박과 승무원은 적절한 보상금이나 그 밖의 보증금을 예치한 뒤에는 즉시 석방된다’고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EEZ 구역에서 어업을 하는 외국선박들이 종종 나포되고, 어업을 두고 다른 국적의 어부들 사이에서 분쟁이 흔하게 일어난다.⁴ 주기적인 불확실성이 어부들에게 걱정을 더했고, 여기에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봉쇄가 추가되면서, 지역 전반에 걸쳐 수산물의 조달과 판매가 거의 중단되었다.

여성어민들의 일

이 지역의 여성어민들이 하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들이 하는 일은 주변적인 일들로 여겨지며 어업을 위해 뱃길만으로 배와 트롤선을 타고 나가는 남성과 동등한 중요성은 거의 부여되지 않는다. 여성어민들의 활동은 주로 생선 판매, 전통방식으로 하는 해초, 게, 새우 등의 다양한 수산물 채취, 가족의 수입을 더하기 위해 수공업 제품을 만드는 것 등이 있다. 지난 수년간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전역에서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명성의 다양한 기관과 프로젝트가 여성어민의 다양한 활동을 장려하고 후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도

인도에서 뱃길만과 경계를 접하는 주는 서벵갈, 오디샤, 텔렝가나, 안드라 프라데시, 타밀나두, 안다만과 니코바르제도 연방구역 등 다양하다. 이 지역들에서 여성어민의 일은 사실상 제한적으로 단지 작은 물고기, 게와 새우, 소라나 조개류의 채집 또는 어망의 손질 정도로 한정된다. 가끔 여성어민들은 인도 어업청의 다양한 복지 프로젝트나 몇몇 독립적인 현지 NGO들의 도움을 받는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 덕분에 여성어민들은 은행 대출을 받아 수산물 홍보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지역의 여성어민들 중에는 오디샤의 간잠 구(인도 오디샤와 텔렝가나 경계)에서

4. <https://www.gonewsindia.com/latest-news/environment/lines-on-water-cannot-save-bay-of-bengal-fisheries-13333-2019년>, 방글라데시 해안경비대는 파투아칼리 해안에서 519명의 인도 어부들을 체포하고 32척의 배를 나포했다. 이곳은 방글라데시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125km이상 안으로 들어온 지역이었다. 인도 어부들은 차후 본국으로 돌려보내졌지만 모두가 이렇게 운이 좋은 것은 아니다. 이것은 방글라데시 어부들이 다른 이웃국에서 혹은 반대로 이웃국 어부가 방글라데시에서 겪는 고난일 수도 있다.

온 치타마(76)처럼 다양한 성공담이 존재한다. 여성 어민 집단의 자립을 위한 그녀의 초기 소규모 활동은 그녀가 사는 마을의 모든 여성어민들을 중간 상인들의 정치에서 구하고 수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무드람(Samudram)’을 창립하기에 이르렀다.⁵ ‘사무드람’의 노력은 이 지역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올리브 바다거북을 보호하는 것까지 이어졌고 11월 1일에서 3월 31까지(인도 국립은행이 4월 15일에서 5월까지 어업 금지한 것 제외) 어업은 금지되었다.⁶ 여기에서 또 언급되어야 할 것은 인도의 안다만과 니코바르제도에 사는 여성어민들에 관한 것이다. 여성어민들은 다양한 민족부족에 속해있고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전통방식을 사용해 어업에 종사한다. 썰물 동안에는 남녀 모두 얇은 암초와 바위 해안에서 물고기를 잡지만 조업을 위해 연안 해역으로 나가는 것은 남성이고 여성들은 동반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남성과 여성 모두 야간 조업에는 참여한다. 남성과 여성 모두의 전통지식은 어업에 도움이 되는데, 싸이클론, 비(구름의 패턴과 찬 공기의 흐름을 관찰), 바람, 파도(니코바르인들의 달력을 통해), 해류(낚싯줄/선박이 움직이는 방향에 근거하여), 수심(물의 색깔이나 직접 관찰을 통해) 등 자연재해에 관해 미리 알려준다.⁷

인도의 다양한 지역에 걸쳐 여성어민들이 자신들의 변변찮은 수입을 다른 추가적인 출처를 통해 보충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다. 여기에는 수

5. 치타마(2020년 76세)는 그녀가 사는 마을의 모든 여성어민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와 수백명의 생계를 보장하는 일을 시작했다. 결혼해서 오디샤 주 사나 아리자팔리 마을로 간 치타마는 어부인 남편이 솔로 변변찮은 수입을 탕진하면서 빚과 가난, 문맹, 영양부족으로 힘든 삶을 경험했다. 1980년대 치타마는 주류 반대운동을 시작했다. 그녀는 1995년까지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여성들이 아동 결혼과 알코올 중독에 맞서 목소리를 내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여성들을 조직했다. 10,000여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해안마을에서 그녀의 지명도가 올라갔다. 점진적으로 치타마는 여성어부들의 저축-신용제도를 조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오디샤 밖에서 거래상들과 공정거래제도를 조직했으며, 2006년 사나 아리자팔리 여성들은 ‘사무드람(바다를 의미)’이라는 현수막 아래 분리가능한 엔진을 단 8대의 전통 어선으로 잡은 어획량으로 첫 거래를 시작했다. 이 운동은 치타마가 지도자가 되어 1995년 비정부기구(NGO)로 등록되었다. 여성어민들은 은행 대출과 비영리단체 OXFAM의 지원 덕분에 2008년 대부업자들로부터 자신의 배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사나 아리자팔리 여성들 덕분에 어부들은 수년간 조업을 계속할 수 있었고 몇몇은 자신의 배를 소유할 수 있었다. 뱃길만 해역에서 어획량이 줄어들면서 흉년인 상황도 있었지만(예, 2017년), 사무드람의 노력은 계속해서 지역민들에게 동기를 부여했다.

6 (오디샤 여성어민들, 단합해 독점적 관행으로부터 무역을 되찾다, 2020)

7 (라비쿠마르 외, 2016)

공예 제품과 예술품들, 예를 들어 벵갈 지역에는 파타치트라(patachitra) 형태의 민속예술이 있는데, 여성어민들이 그린 ‘마체르 비예(machher biye, 물고기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이들의 본업을 반영한다. 공연예술가들인 파투아스(patuas, 예술가들)는 두루마리 그림을 펼쳐보이며 노래를 부른다. 또한 서벵갈 지역의 여성어업인들이 만드는 훌륭한 비늘 수공예의 사례들도 있다. 오디샤, 텔렝가나, 안드라 프라데시, 타밀 나두와 안나만과 니코바르제도(인도) 지역에는 소라와 조개로 만든 다양한 수공예품과 코코넛 엘크(윤을 낸 코코넛 껍질)는 물론 여성들이 추가 소득을 얻기 위해 만드는 형겔인형도 있다.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에서도 여성의 역할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구체적인 통계는 없지만 시골 해안지역 여성의 약 30%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규모 어업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로는 바리살과 라지샤히 구(고기잡이, 담수와 해수 수산물의 판매, 건조와 염지), 치타공과 쿨라 구(새우 가공공장) 등이 있다.⁸ 몇몇 여성어민들은 어망 제조, 가두리양식/양어장, 가금류 사육(오리와 닭), 소형 유제품(염소와 소 기르기), 수공예(인형 만들기, 바느질, 자수), 창업(소규모 식료품점/차 판매대), 모종발 등의 활동에서 대체 수입을 벌어들이기 위해 훈련을 받는다. 다양한 국내 및 국제 프로젝트들의 노력은 여성어민들이 가게, 특히 저비용 신용거래에 접근가능한 여성어민들을 돕기 위해 저축 그룹을 구성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⁹

스리랑카

벵갈만에 접한 스리랑카 북부와 동부 끝자락의 이야기는 30여 년간 이 나라가 직면한 길고 긴 정치적 분쟁 때문에 남아있는 기록은 제한적이다. 전쟁으로 나라 전체와 경제가 영향을 받았지만 북부와 동부가 특히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았다. 스리랑카에서 어업 부문은 2009년 5월 전쟁이 끝났을 때 전후 재건 논의에서 특히 중심을 차지했다. 어업은 특히 북부와 동부에서 장비와 생명, 인프라의 소실과 매우 엄격한 제한조치로 인해 엄

8. <http://www.fao.org/3/ad745e/ad745e00.pdf>

9. (‘보이지않는’ 방글라데시 여성어민들 목소리를 내다, 2017)

청난 손상을 입었다. 따라서 다양한 문제로 인해 스리랑카 북부와 동부 지역에서 전쟁 기간 동안 여성어민에 관한 적절한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연구이고, 비전통적인 역할(집안의 가장 또는 유일한 생계부양자 등), 재난상황에서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전통적인 해양 관습을 사용함으로써 여성이 특별히 기여한 점들을 부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은 언급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연구는 또한 전쟁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된 여성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전후 시기 벵갈만 경계에 위치한 트린코말리 구(스리랑카 동쪽 해안에 위치) 주변의 학술적 현지조사와 민족지학적 탐사를 통해 몇몇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지역의 여성어민들은 민족과 종교에 따라 크게 나뉘는데, 싱할라족(불교도), 스리랑카 타밀족(힌두교), 스리랑카 무어족(이슬람교도), 그리고 베다민족 공동체(2012년 국가 통계청 자료 참고) 등 여러 민족들로 구성된다. 싱할라족과 타밀족 여성들은 대부분 생선 판매에 참여하고, 이슬람교도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진흙에서 조개와 소라를 캐는 것과 해초 채집에 참여한다. 베다족 여성들은 유일하게 남성들과 함께 어획물을 해안으로 끌어오는 어업에 참여하는 것이 목격된다. 스리랑카에서 여성어민들의 역할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이다. 역사적으로 스리랑카 동부에서 어업은 오직 남성이 주도권을 가진다. 전후 시기, 여성어민들의 낮은 기여도는 전통 어로방식의 생존과 여성어민 공동체 내부의 어업 관련 다양한 활동에서 종교와 민족을 기준으로 한 엄격한 분리 등 몇 가지 구체적인 주요 사회문화적 관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비록 여성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여성어민들은 종종 생계와 계획에 있어 대안적 방법의 일부로 보여진다. 여성어민들에게 이러한 활동을 장려하는 많은 소규모 프로젝트가 수년간 진행되어 왔다. 여기에는 수공예(나무, 소라, 코코넛 엘크로 상품 만들기), 가축 사육(소, 버팔로, 염소 기르기), 옷감 바느질, 친환경 관광과 알로에베라 농사(약과 화장에 사용)를 통한 다양한 수입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은 만나 구의 해안지역, 바티칼로아 구, 파나마에서 포트빌까지 펼쳐진 지역, 레카와, 우상고다, 칼라메티야 연안지역, 푸탈람 라군과 마두강가 등 스리랑카의 동부와 북부(그리고 서부 지역도 포함) 석호의 넓은 지역 전반에 걸쳐 반영되었다.¹⁰

10. https://www.iucn.org/downloads/mmf_web.pdf

코로나19로 인한 현재 팬데믹 상황

현재의 팬데믹 상황은 지역 전반의 여성어민 공동체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인도 전역의 많은 국내와 영어매체들이 종종 어부들의 어려움을 보도했지만 여성어민들이 겪는 역경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이 연구 논문을 위해 국내 영어신문들을 철저히 조사했지만 인도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 여성어민들이 겪는 역경에 대한 정보는 드물었다. 그러한 보도 중 하나는 케랄라(인도 서부)에서 나왔다(2020년 7월 10일, 금지령으로 여성어민들의 위기가 깊어지다, 뉴인디언익스프레스, 날짜 없음). 이 기사는 남편이 팬데믹으로 일자리를 잃고 가정의 유일한 생계부양자로서 여성들이 겪는 고난을 강조했다. 여성어민들은 또한 판매를 위한 충분한 양의 생선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시장이 여는 시간이 제한되면서 매우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팔 수밖에 없었다. 팬데믹 봉쇄 기간이 시작된 초반에 타밀 나두 주(인도)에서 나온 기사(2020년 4월 7일, M S 스와미다탄 연구재단에서 작성)¹¹는 어획량이 사실상 매우 제한적이고, 시장에서 어부들에게 판매공간을 빼앗긴 것, 시장이 제한적인 시간 동안만 열리기 때문에 매우 낮은 가격에 그날의 어획물을 모두 팔아야 하는 점 등 여성어민들이 처한 매우 비슷한 상황에 대해 말했다. 여성어민들 대부분의 생선 가격은 급락했다. 봉쇄가 실시되기 전 생선 가격이 킬로그램 당 500 인도 루피였다면 봉쇄와 사회적 제한조치들이 시행된 이후 가격은 킬로그램당 300-350 인도 루피로 떨어졌다.

결론

해양양식업의 발전은 연구대상 전체 지역에서 보편적인 것이었다. 그 주된 이유는 어류양식을 통해 발생하는 외화수입 증가 때문이었다. 여성들은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전역에서 여성어민들은 예술과 수공예, 가축사육, 농사와 다른 방법들로 가계 수입을 보충하는 데 있어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지만 이 지역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이들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최소한이었다. 여성들은 모든 생계유지 대안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이들의 가치 있는 공헌을 인식하고 사회적 통합과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진정한 선구자로서 역할에 적절한 인정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11. 코로나19가 해양 어업 공동체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 2020